

I. 動向과 展望

1. 94年 11月中 産業 活動 內容

- 11월중 産業 活動은 生産, 投資, 輸出, 內需 등 모든 부문에서 본격적인 擴張勢를 지속
- 重化學工業의 호조 지속 속에 輕工業이 회복되어 産業 兩極化 현상 완화
- 당분간 景氣에 대한 낙관적인 期待 속에 設備 投資 증가세 유지 전망
- 반면 輸入의 급증이 經濟 安定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 11월중 産業 活動은 生産, 投資, 輸出 및 內需 出荷 등 모든 부문에서 본격적인 확장세를 지속
 - 11월중 産業 生産은 전년 동월비 13.5%, 出荷는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10월의 각각 15.0%, 15.0%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
 - 設備 投資도 機械 受注 53.3%, 機械類 輸入 許可 84.2%의 증가율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활발한 상태임
 - 出荷의 구성에서도 輸出用 出荷가 20.9%, 內需用 出荷가 13.8%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輸出과 內需가 모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94년 11월중 産業 活動 動向 >

(전년 동기 대비, %)

	'94 상반기	'94 3/4	'94 11월		'94 상반기	'94 3/4	'94 11월
生産	10.5	8.9	13.5	출하	11.1	10.3	15.6
중화학	13.5	10.9	17.1	내수용	11.9	10.6	13.8
경공업	2.3	1.8	4.6	수출용	8.9	9.5	20.9
국내기계수주	27.2	32.2	53.3	기계수입허가	60.7	81.2	84.2

- 産業別로는 重化學工業의 生産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輕工業의 生産도 회복세로 돌아서 産業 兩極化 현상이 완화
 - 産業 生産에서 중화학공업은 17.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경공업도 10월의 7.3%에 이어 4.6%의 증가율을 기록,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 重化學工業은 증분류 기준 13개 업종중 석유정제(-2.6%)를 제외한 전업종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영상·음향·통신 기계(35.9%), 사무·계산·회계용 기계(30.8%), 자동차 및 트레일러(21.3%)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음

- 輕工業은 담배(-8.2%), 신발(-10.6%), 기타제조업(-2.4%)이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의류(10.0%), 음식료품(8.9%), 종이 제품(10.6%), 인쇄·출판(14.5%)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당분간 景氣에 대한 낙관적 期待가 지속되는 가운데 設備 投資의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 11월말 在庫는 5.6% 증가하였는데, 특히 호황 업종인 사무·계산·회계용 기계(28.5%), 자동차(12.3%), 조립 금속 제품(12.7%), 음식료품(48.4%)의 재고 증가가 높게 나타남
 - 이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의도적 재고 증가 현상으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生産 能力 指數*는 5.6%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平均稼動率은 85.4%로 87년 이래 최고 수준에 이룸
 - 이와 같이 生産 能力의 꾸준한 확대 속에서 높은 稼動率이 지속되는 것은 設備 投資 擴充의 誘引으로 작용할 것임
 - 建設 投資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민간 제조업에서의 건설 수주가 125.5%, 공업용 건축 허가가 10.4%의 높은 증가를 나타냄
 - 이들은 건설 투자 지표들 중에서도 설비 투자와 관련이 깊은 지표들로 설비 투자의 先行的 성격이 강한 지표들임
 -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 設備 投資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인 産業 活動 호조 속에서 輸入 急增에 따른 國際 收支 惡化가 經濟 安定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
 - 資本財 부문에서 기계류 수입 허가액(84.2%) 및 수입액(41.3%)의 증가율이 국내 기계 수주(53.3%) 및 기계류 내수 출하(21.2%)의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높음
 - 消費財 부문에서도 내수용 소비재 출하의 증가율(10.3%)에 비해 소비재 수입의 증가율(32.4%)이 현격히 높음
 - 전체적으로 불 때 전반적인 산업 활동의 호조 속에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兩極化 현상이 완화되고, 설비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성장 패턴이 건실화되고 있지만 수입이 급증하여 國際 收支 赤字가 심화됨으로써 經濟 安定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김 창 욱)

* 주 :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산출할 수 있는 생산량의 지수

2. 元貨 780원臺 進入과 外換 政策

- (動向) 對美 달러 元貨 換率 약 2년만에 780원臺 進入
- 政府는 올해말의 換率이 750원線까지 下落하는 것을 용인할 방침 시사
- (企業의 對應) 換危險 管理 技法의 노하우 축적이 시급함

- 昨年末 對美 달러 元貨 換率 788.7원 기록
 - 94年中 元貨 환율은 93년末(808.1원) 對比 2.5% 下落하였음
 - 작년 上半期中 元貨 환율은 2.6원 하락한 반면, 下半期中에는 누적된 외화의 유입으로 인해 16.8원 하락하여 下半期에 급속히 切上되었음

- 政府가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末의 元貨 환율을 昨年末보다 약 40원(5%) 낮은 750원線까지 切上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음(「韓國經濟新聞」, 95.1.6)
 - 財政經濟院의 발표에 따르면 外貨가 10억불 유입될 때마다 元貨가 0.4~1% 하락한다고 전제하고, 올해의 外貨 流入量을 100~130억불로 예상하였음
 - 國內 主要 研究機關들은 올해末의 換率을 770~775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반적인 下向調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外貨의 流入과 元貨 切上이 加速化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작년에 발표된 외환제도개혁안과 올해 15%로 擴大될 예정인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등으로 外貨 流入 要因이 산재한 상황임
 - 올해는 SOC 투자 확대, 지자체 선거 등으로 자금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韓國銀行은 올해 총통화 증가율을 작년(14~17%)보다 1~2% 낮은 12~16%로 운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金利上昇 壓力이 가중될 것임
 - 따라서 이미 산재한 外貨 流入 要因이외에 元貨 切上 期待心理, 金利 上昇에 의한 投資 期待 收益率 증가 등으로 外資의 流入과 이에 따른 元貨의 切上이 加速化될 수 있음

- 換率 切上에 따른 企業의 對應 方案 강구가 시급함
 - 무역업자들은 달러당 810원을 적정 환율로 밝히고 있어(「日刊貿易」, 94.12.26) 元貨 切上이 수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金利 및 換差損을 노린 外貨의 流入으로 환율의 變動率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 企業은 환율변동에 따른 換危險 관리를 위하여 外換 및 국제 금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각종 환위험 관리기법의 노하우 축적에 노력하여야 함

(이 준 호)

3. 最近 株價 下落의 原因과 展望

○(原 因) 정부의 通貨 緊縮으로 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機關 投資家의 賣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展 望) 통화 긴축 기조 지속, 기관 매수 여력 약화, 수급 악화 등으로 2월말까지 약세 지속

(最近 株價 動向과 下落의 原因)

- 지난 1월 6일, 종합주가지수는 최고치(94년 11월 8일 : 1,138.75 P) 대비 14.5%가 하락한 975.32 P를 기록하였음
- 이와 같이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최대 요인은 정부의 通貨 緊縮으로 인한 시중 자금사정 악화로 그동안 매수 일변도였던 기관 투자가의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임
- 따라서 최근 장세의 특징은 “시중 자금사정 악화 → 기관 매물 증가 → 대형주 하락 → 주가 하락”의 惡循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음

	11/8	11/15	11/30	12/15	12/28	1/6
주가지수(P)	1,138.75	1,125.80	1,074.41	1,027.87	1,027.37	975.32
회사채(%)	13.78	13.80	13.96	14.28	14.25	14.42
고객예탁금	36,936	35,687	33,339	32,979	24,260	27,367

주 : 고객예탁금 단위는 억 원임

(向後 展望)

- 1월 6일 이후 주가지수가 소폭 회복하고는 있으나 2월 말까지는 현재의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3월 이후에 가서야 부동산 실명제, 지자체 선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 대형 호재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것임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의 강력한 物價 安定 의지에 따라 통화 긴축이 지속될 것임
 - 둘째, 2월 12일 투신사의 韓銀 特融(1조 3천억 원)이 예정되어 있는 등 기관 매수 여력 약세 지속
 - 셋째, 2월까지 유·무상 증자 등 약 3조 원에 이르는 주식 공급 물량으로 需給 惡化가 예상됨
-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 시중 浮動資金이 증시로 유입될 것을 기대한 先取買가 일어날 경우 상승세로의 전환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

(박 종 곤)